

(12) 주차 학습내용

관련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수업내용)			
문화적 관광자원		민속문화재			
수업 내용	관련지식 및 유의사항	○ 의식주 ○ 생산. 생업 ○ 교통. 운수. 통신			
	실습내용 (실습절차 및 지도내용)	없음			
	실습결과 및 피드백 방안	없음			
	이론수업내용 (해당주차에 이론수업이 포함되는 경우 작성)				
준비물 (재료 및 도구)	재료(도구)명	규격	필요량	비고	
	전자교탁		1		
	빔 프로젝트		1		

민속문화재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한국 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것을 가리킨다. (문화재보호법 2조)

즉 민속문화재란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의식주에 관한 것, 생업(生業)에 관한 것, 신앙의례에 관한 것, 교통, 운수, 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연회, 놀이에 관한 것, 민속예능, 오락, 유희에 관한 것 등의 8개 분야로 나뉘어 지정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동법 제2조 1항 4호에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가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으로 민속자료를 규정하였으며, 중요민속자료는 문화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민속자료의 자세한 종류로는 ①생업에 관한 것, ②사회생활에 관한 것, ③신앙의례에 관한 것, ④의식주에 관한 것, ⑤연회, 놀이에 관한 것, ⑥교통, 운반에 관한 것, ⑦중요민속자료에 관한 것, ⑧지역별 중요 문화시설자료에 관한 것 등이 있다.

의식주

1. 의복 (衣服)

의복은 생활공예 중 복식공예에 속하는 민속자료이다.

중요민속문화재 제37-3호로 지정된 난봉화문단겹장옷(鸞鳳花紋緞겹장옷)은 학성 이씨 이천기의 셋째 아들인 이지영과 그의 부인 평해황씨의 부부합장묘에서 출토된 복식으로 장옷의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색상은 갈변되어 원래의 색을 알 수 없으나 문양 구성이 특징적인데 5매 수자직으로 화려한 문양을 이루고 있다. 난봉문은 꼬리가 화려한 봉황문의 일종인데 (악학궤범)의 비난삼(緋鸞衫)에 그려진 흉배에서 대략적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두마리가 마주보고 있는데 꼬리가 길고 여러 갈래로 갈라졌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6월 18일 중요하며 민속자료 제37-3호 운문단직령포에서 난봉화문단겹장옷으로 개별유물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황갈색(黃褐色)의 운문단포(雲紋緞袍)인데 목판(木板)깃이고 쌍접이 특이(特異)하며 양쪽의 무도 넓은 편이다. 포(袍)길이 122.5cm, 뒤폭 22cm, 화장 55cm, 쇄넓이(길쪽 15cm, 바깥쪽 20cm), 소매통 30cm,

깃넓이 10.8cm, 겹깃길이 35.5cm이다.

중요민속문화재 제 1호인 덕온공주당의 (德溫公主唐依)는 조선시대 순조(재위 1800~1834)의 셋째 공주인 덕온공주가 입었던 것이다. 이 옷은 그녀의 손녀인 윤백영이 저고리, 노리개, 원삼 등과 함께 아버지인 윤용구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7세 되던 해 대궐에 입궐하면서 자신의 몸에 맞게 고쳐 입으면서 개조하였다.

당의란 조선시대 궁중과 사대부 연인들이 저고리 위에 입던 예복으로, 모양은 저고리와 비슷하지만 앞과 뒤의 길이가 길고 옆이 터진 옷이다. 자주색 비단에 옷 전체에 수(壽),복(福)이라는 글자를 금실로 새겼다. 이 옷은 착용자 신분이 뚜렷하고 연대가 확실한 왕실의 유물로서 조선 후기 상류층의 복식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 113호인 고대박물관(高大博物館) 소장(所藏) 홍진종의복(洪鎭宗依服)은 조선시대 문신 홍진종(1649~1702)의 의복으로 1968년 경기도 오산읍에서 출토되었다. 그는 숙종3년(1677)진사에 급제하여 평강 현감을 지낸 적이 있으며 출토된 유물에는 중치막 8점, 소창의 2점, 심의1점, 답호1점, 바지3점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의는 평상시 외출용으로 입거나 중치막을 입고 안에 밑받침 옷으로 입었다. 명주에 솜을 두고 얇게 누볐으며 옆에 덧대는 천인 무가 없고 겨드랑이부터 트여 있다. 중치막은 사대부들이 관복 속이나 겹옷으로 평소에 입는 옷인 창의의 일종으로 지금의 두루마기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동정이 없고 소매가 길고 넓으며 옆이 터진 옷이다. 명주에 솜을 두고 누볐으며 깃은 반달깃이고, 옷자락 끝이 뽕죽하다. 소매는 길며 둥글려진 형태인데 소매통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심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입던 옷으로 옷깃, 소매끝, 옷단 등에는 검정 선을 두른 소매가 넓은 옷이다. 이 옷은 현존하는 옷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허리에 두르던 대(帶)까지 보존되어 있다.

답호는 뒤가 앞보다 30cm 정도 짧은 누비옷이다. 일반적으로 답호란 소매가 없고 길이가 길며 옆과 앞에 덧대는 천인 무와 쏘이 없고 뒷술기가 허리 아래부터 트인 옷을 말한다. 바지에는 겹과 속이 모두 명주로 안에 얇은 솜을 두고 1.5cm로 누빈 것과 명주에 솜을 두껍게 두고 6cm 간격으로 누빈 겨울용 그리고 목면을 누벼서 만든 것 등이 있다.

이 유물들은 17세기의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 당시의 복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 62호인 적초의(赤稍衣)는 지정(등록)일이 1979년 01월 23일이며, 제복이다. 제복이란 왕이 종묘사직 등에 제사지낼 때 입던 옷으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입는 조복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머리에 쓰는 금관인 양관에 금칠이

훨씬 적고 붉은 옷의 적초의가 아닌 푸른색의 청초의를 입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이 옷은 붉은 갑사로 지어졌으며 깃과 옷 둘레에는 검은 선을 두르고 선 사이에 0.3cm 정도의 흰색 선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옷은 대한제국 말의 조복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왕의 조복에 해당하는 강사포나 제복인 구장복과는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 옷은 왕이 아닌 문무의 신하들이 입던 조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창덕궁에 보관되어 있는 20여점의 다른 옷들에 비해 제작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나 착용자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2006년 4월 21일 지정명칭이 고종사제복(高宗紗祭服)에서 적초의(赤綃衣)로 변경되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 37-7호인 면포솜버선(綿布솜버선)은 학성이씨 월진문회 소유이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학성이씨 이천기의 셋째 아들인 이지영과 그의 부인 평해황씨의 부부 합장묘에서 출토된 면포로 만들어진 솜버선이다. 버선은 좌우 1쌍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안팎 모두 면포이며 솜을 얇게 두었는데 수놓이 곧게 꺾여 있어서 비교적 고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발길이 24cm, 높이 27cm, 버선목은 17cm이다. 2004년 6월 18일 중요민속자료 제 37-7호 버선에서 면포솜 버선으로 개별 유물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37-4호인 면포솜장옷(綿布솜장옷)은 조선시대 학성이씨 이천기의 부인 흥려박씨의 묘에서 출토된 짙은 아청색(鴉青色)면포로 만들어진 두터운 솜장옷이다. 뒷길이는 124cm, 뒤폭은 57cm, 화장은 90cm이며, 좌우 옆 안으로 들어 달린 목판깃과 좌우 양 옆이 모두 두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 37-6호 명주솜누비치마(明紬솜누비치마)는 이천기의 셋째 아들인 이지영과 그의 부인 평해황씨의 부부 합장묘에서 출토된 명주로 만들어진 솜누비치마이다. 말기 부분이 없이 치맛자락만 남아 있는데, 치마길이는 86~89cm이고 치마폭은 10폭으로 전체 310cm정도의 직사각형이다. 겉감은 명주이고 안감은 면포이다. 치마 안쪽으로 선단에는 별포(別布)의 이색(異色)선장식을 붙여서 장식성을 더하고 있다. 좌우 선단과 밑단의 선장식 나비는 1.2cm~1.5cm 정도이다. 치마의 안쪽 좌우 모두 선단부터 처리한 후 밑단 선장식을 올려 마무리하였다.

2. 장신구

몸치장을 하는데 쓰는 도구로 짐승의 뼈, 뿔 등으로 만든 간단한 머리꽃이 라든가 가슴걸이 등이었는데,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몸의

각 부분을 치레하는 여러 가지 장신구가 발달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장신구가 발달한 것은 몸치레를 하여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욕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분히 주술적(呪術的)인 의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의 형성 및 발전과 더불어 장신구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분의 표상으로 한층 더 증가, 발달하였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에서 옥석을 갈아 만든 관옥(冠玉)이나 짐승뼈로 만든 목걸이 장식이 발견되며, 청동기시대에 이르러서는 한층 더 다양해졌다. 삼국시대에는 공예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화려한 금, 은, 금동제의 장신구가 제작되어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특히 신라에서는 금속 세공기술이 크게 발달하여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 등이 훌륭한 예술품을 창조해냈다. 조선시대에도 금은, 보석류의 세공기술이 장신구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장신구의 종류로는 관모, 과대, 노리개, 목걸이, 귀고리, 가락지, 비녀, 첩지와 떨잠, 동곳, 뒤꽂이, 주머니 등이 있으며 장도(粧刀), 침통, 바늘집, 빗치개 등 실용성을 겸한 것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여성들의 품위와 멋을 더해 오다가 개화기 후에는 향낭(香囊), 장도 등의 장신구는 점차 소멸되어 갔고 노리개는 성장할 때 사용되었다.

3. 음식용구

음식용구는 사발. 대접. 접시. 종발. 숟가락. 국자. 젓가락. 독. 항아리. 뚝. 두멍. 단지. 두루미. 채반. 소쿠리. 광주리. 술. 냄비. 도마. 칼. 강판. 조리. 깔대기. 번철. 석쇠. 양념절구. 신선로. 전골틀. 화덕. 시루. 시룻방석. 떡판. 떡메. 떡쌀. 다식판. 약과판. 소줏고리. 용수. 기름틀. 메밀묵틀. 국수틀. 밀대. 풍로. 삼발이. 바가지. 두레박. 물동이. 물통. 물지게. 파리. 개수통. 설거지술. 수세미. 밥상. 돌상. 공고상. 교자상. 약상. 전골상 등이며,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11호인 장화리쌀뚝주(長華里쌀뚝주)는 생업기술용구 중 농경음식용구로 분류하며, 쌀을 담기 위해 만든 대형 뚝주이다. 보통의 뚝주가 통나무나 널빤지를 짜서 궤짝의 형태로 만드는 데 비해, 이 뚝주는 크고 외형도 독특하다. 크기는 너비 2.1m, 높이 1.8m로, 널빤지를 짜 맞추어 벽체를 구성하고 벧집으로 지붕처럼 뚜껑을 만들어 씌웠다.

이 고장 출신인 정준섭은 당시의 큰 부자로, 이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매일 수백 명에 이르자 작은 궤짝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안마당에 이러한 초대형 쌀뚝주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선 고종 초에 제작된 이 뚝주는 70가마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고 독특한 건조물로서, 집을 찾는 사람들을 소홀하게 대접하지 않

있던 당시의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민속자료이다.

4. 가구

한국전통가구의 기본형태에는 이층장, 투각이층장, 삼층장, 머릿장, 의거리장, 자수이층농, 자개이층농, 이층농, 삼층농, 죽장농, 반단이, 문서반단이가 있다.

전통가구 장식은 장, 농, 반단이 등의 문짝과 옆널에 부착되어 문짝을 개폐할 수 있는 경첩이다. 경첩은 대칭이 되는 두 개의 금속판 기둥축을 중심으로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다. 들쇠는 가구를 들어 올리거나 서랍, 문짝을 열 수 있도록 만든 손잡이이다. 또한 감잡이, 귀장식, 뽕침대, 자물쇠, 고리, 앞바탕, 광두정, 새발장식, 꾸밈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주거용구

국보 제164호인 무령왕비 베개(武寧王妃)는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백제시대의 유물로 무령왕릉 목관 안에서 발견되어, 왕비의 머리를 받치기 위한 장의용 나무 베개로 위가 넓은 사다리꼴의 나무토막 가운데를 U자형으로 파내어 머리를 받치도록 하였다. 표면에는 붉은색 칠을 하고 금박을 붙여 거북등무늬를 만든 다음, 칸마다 흑색, 백색, 적색 금선을 사용하여 비천상과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봉황, 어룡(魚龍), 연꽃, 덩굴무늬를 그려 넣었다. 베개의 양옆 윗면에는 암수 한 쌍으로 보이는 목제 봉황머리가 놓여 있는데, 발굴 당시에는 두침 앞에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왕의 머리 받침은 거의 부식되어 두 토막만 남아 있을 뿐이어서 형체를 알 수 없다.

6. 관혼상제용구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35호인 신계서원제기(新溪書院祭器)는 의례용구이며, 경남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726의 밀양박씨 문중에서 소유하고 관리 중이다. 조선 현종 5년(1839)경에 박익 선생의 제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그릇들이며, 제작 당시에는 모두 32점이 제작되었으나 현재는 술잔 6개, 술통 2개, 사각형 밥그릇 4개, 원형 밥그릇 2개, 쫓대 2개, 향을 담는 그릇인 향합 1개 등 18점이 남아 있다. 이 그릇들은 제기로서는 드물게 청동으로 만들었다. 매년 3월 신계서원에서 박익 선생의 제사에 사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6호인 제구는 초상을 치를 때 묘소까지 시신을 운반하던 기구이다. 간략하면서도 화려한 색채가 눈에 띄는 이 상여는 오색천을 띠모양으로 잘라 몸체를 감싸고 쇠붙이장식을 매달았다. 네 귀에는 ‘요령’이라는 방울을 달아 상여가 움직일 때마다 저절로 울리게 하였고 지붕에는 민화풍의 화려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옛 문서의 기록에 의하면, 저선 영조 39년(1763)에 이 상여를 만들었다고 한다. 서귀포시의 신호. 하효 마을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어렵게 마련한 것으로, 두 마을에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 전시하고 있다.

생산. 생업

생업에 관한 것은 ①농기구 : 쟁기. 가래. 삽. 썰이. 쇠스랑. 씨래. 호미. 두레. 맞두레. 용두레. 무자위. 두레박. 흙통. 거름장군. 거름통. 거름바가지. 귀때동이. 삼태기. 낫. 전기. 개상. 벼훅이. 도리깨. 홀태. 호룽기(탈곡기). 갈퀴. 넝가래. 물레방아. 물방아. 연자방아. 디딜방아. 절구. 매통. 명석. 밭. 도래방석. 섬. 떡서리. 채독. 나락두지 등, ②수렵기구 : 활. 창. 툄. 덧. 그물. 올무, ③수산물기구 : 주낙배. 돛배. 뗏목. 투망. 낚시. 작살. 대창. 물치창. 반두. 사내끼. 통발. 이끼수. 썩가래. 수경. 그랭이(바지락 채집용). 새꼬막 채묘기(採苗器). 굴 채묘상(採苗床), ④광산용구, ⑤각종 공장용구(工匠用具), ⑥축산기구 : 닭등우리. 구유. 길마. 착도, ⑦양잠기구 : 잠박. 잠박틀. 잠썰. 잠망. 회전썰. 말연썰. 견면채취기. 뽕칼. ⑧양봉기구이다.

1. 농기구

강원도 민속문화재 제 6-2호인 방아실은 생업기술용구 중 농경용구로 분류되며, 조선시대에 사용되었고, 강원도 정선군 백전리 마을에 남아있는 물레방앗간이다.

앞면2칸, 옆면1칸 규모에, 대마(大麻)라는 식물의 속대공으로 엮은 지붕을 올린 저릅집이다. 벽체는 나무판자로 되어 있고 건물 밖에는 물레가 설치되어 있다.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물레(바퀴)가 돌아가고 이 회전운동에서 생긴 힘이 방앗간 내부의 방아시설로 전달되어 곡식을 빻게 된다.

2. 어업구

어업구란 물고기 잡는 도구를 총칭한 용어이다. 여기에는 어살과 독살이 있는데 어살이란 함정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는 어구류(漁具類)를 말하고, 독살이란 어살 가운데 하나로 해안가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돌을 이용한 것이다. 즉 독살을 이용하여 고기 잡는 것은 밀물이 될 때 고기가 조수와 함께 해안 깊숙이 들어왔

다가 썰물이 되면서 수위가 낮아질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독살 안에 갇혀 잡히는 것이다.

3. 방직용구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 16호인 무명짜기는 고려 후기 문익점이 중국 원나라에서 들여온 것(무명의 원료가 되는 목화)으로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면이 의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선 전기부터는 쌀과 함께 화폐구실을 할 정도로 급속히 보급되었으며, 일본으로 보내는 주요 교역품 가운데 하나였다. 무명은 광목, 옥양목, 서양목 등으로 나뉘는 우리나라 전통직물로, 의복의 재료 외에도 이불 재료나 기타 생활용구를 만드는 재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제작과정은 목화재배와 수확, 씨앗기와 솜타기, 고치말기, 실짓기, 무명날기, 베매기, 무명짜기 순으로 나뉜다. 씨앗기와 솜타기는 목화에서 씨를 빼내고 솜활이라는 기구를 이용해 솜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다. 고치말기는 솜을 말판 위에 펴놓고 말대로 비비는 과정이며, 실짓기는 물레를 이용해 실을 뽑고, 뽑은 실을 가락에 감는 단계이다. 무명날기는 실의 굵기에 의해 한 폭에 몇 올이 들어갈지 결정하는 것이다. 무명날기가 끝난 날실을 팽팽하게 하는 베매기와 풀먹이기 과정을 거친 후 베틀을 이용하여 무명을 짠다.

무명짜기는 한민족의 옷을 풍요롭게 하고 한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전통기법으로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수직기에 의한 전통적인 무명짜기는 1990년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백문기(白文基)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교통, 운수, 통신

교통, 운반에 관한 것은 ① 교통구: 쌍가마, 명차, 보교, 사인교, 독교, 샷갓가마, 남녀, ② 운반구: 걸채 및 발채, 옹구, 거지게, 발구, 달구지, 지게, 바소거리, 망태기, 주루막, 다루깨, 바구니, 광주리, 다래끼, 종다래끼 등이다.

1. 운반용 배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배를 만들어 이용해왔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건당선(遣唐船)을 당나라에 파견하며 문물을 교환하였으며, 진도에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시아에 위세를 떨치 시위하여 우리 민족의 기상을 선양하였다. 고려는 초기부터 대형 세곡(稅穀)운반선인 조운선(漕運船)을 사용하였으며, 몽골과 더불어 각종 군선을 동원하여 일본 원정에도 나섰다.

조선왕조는 개국 초기부터 판옥선(板屋船)과 거북선을 개발하여 임진왜란 등과 같은 국난을 타개하기도 하였다.

돛단배는 선체 위에 세운 돛에 바람을 받게 하여 풍력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배로서 돛배라고도 한다. 그러나 범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돛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돛과 기관을 함께 갖춘 것도 있는데, 이와 같은 선박을 기범선(機帆船)이라 하며, 이러한 기범선도 돛으로 바람에 의해 항진할 경우에는 항법상 범선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오늘날 소형어선, 요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선은 돛과 보조용 동력기관을 갖춘 기범선이며, 순풍에만 돛을 이용하고, 그 외는 동력으로 항주(航走)한다.

2. 수레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 14호인 세종대왕연은 이동운송기술용구로, 연(輦)은 임금의 거동할 때 타는 가마를 일컫는 것이고, 이 가마는 조선 세조가 마곡사에 올 때 타고 온 것이다. 4명이 들 수 있도록 한 긴 멜대 위에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된 사각형의 몸체를 올리고 지붕을 덮는 모습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파손된 부분도 있고 채색도 희미한데,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하다.